

로마네스크 시대 복식의 구조적 분석

-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

윤 점 순[†]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n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the Romanesque era's costume

- Centering around woman's costume -

Jeom Soon Yoon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

ABSTRACT

This study has resulted in the followings applying costume's form and meaning to the theory of structuralism established by Saussure and the extensive and contained meanings of Roland Barthes.

The kinds of woman's costume of the Romanesque era were not various, but those of the royal family and aristocratic class were more various and decorated better than the lowly persons. So their social levels could be differed by the forms of the costume they wore.

Each form of costume was differed according to the structural elements and showed the feature that the form is the costume of the era and social position's differences of the wearers' sexes, levels, and vocations in the same era.

Costume's analistic body was the costume's form selected according to the central analystic elements, this showed the meaning of the era's levels and classes, that is, the costume's structure was reflected by the era's features.

In the structure of the woman's costume in the Romanesque era, many religious features were emphasized and the elements forming each analystic body were classified and meant the society's features.

(Korean J Human Ecology 1(1): 113-125, 1998)

KEY WORDS : signifier, signified, paradigmatic structure, syntagmatic structure.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
148 Ssangchon-dong, Seo-gu, Kwangju 502-791, Korea
Tel : 062-370-8282, Fax : 062-370-8008
E-mail : hae@honam.honam.ac.kr

1. 서론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복식은 착용자의 무언의 의사 전달체의 형태이고 심리적 상태를 전달하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복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분, 직업, 가치관, 태도, 성별, 연령, 인성, 취미, 흥미 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역사 복식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호라 할 수 있는 바 각 시대 및 지역의 문화적 산물로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예술적인 변화를 반영하면서 독특한 양식과 형태를 가지고 발전되어온 문화적 기호로 볼 수 있다.

기호란 기표와 기의의 결합체로서 일정한 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합의된 형태를 말한다. 이 기호 이론은 언어학의 구조주의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구조주의란 기호들의 부분과 부분의 내부 결합 구조를 파악하여 완성된 전체를 이루는 방법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법론이다. 모든 기호체를 조직하는 기본 이론은 계열 구조와 통합 구조에 의해 설명된다. 계열 구조는 공통적 특성을 갖는 대체 가능한 구성 요소들의 관계이며, 통합 구조는 계열 구조에서 선택된 단위들이 다른 단위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는 것이다(윤점순 1997).

일찌기 언어학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966)는 패션이 기호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였으며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83)는 인간 문화 요소중에서도 의상이나 그 유행에 관한 구조를 언어학 이론에 의하여 그 의미 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복식 기호학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근래에 들어와서 표면적인 현상들을 기호로 보고 이의 기저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언어학에서부터 출발하여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였고 그 영역을 날로 확장시킨 결과로 오늘날 의미의 발생과 의사 소통에 관계되는 거의 모든 학문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세의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복식을 소쉬르에 의해 정립된 구조주의 이론과 롤랑 바르트의 외연적 내포적의미를 적용하여 복식의 형태와 의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복식은 그 시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기호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복식의 구조적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쉬르의 구조주의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에 의해서 정립된 언어 이론이다. 그는 언어를 하나의 자율적인 체계로 보고 그러한 언어 체계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 했다(소두영 1984). 체계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부분은 부분 내에서 부분들끼리 서로 대립되고 변별될 때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체계를 구조라 한다. 즉 구조란 계층으로 이루어진 내적 관계의 자율적 실체이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이러한 구조주의적 토대 위에서 비언어학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의미 작용도 그것의 구조는 문자 언어의 그것과 유사한 기호 체계에 기초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구조주의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요소의 성질 그 자체로는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으며 실제로는 그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요소와 그것이 가지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실체든 경험이든 그것의 완전한 의미는 그것을 부분으로 삼고 있는 구조 안으로 통합되어짐으로써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호옥스, 오원교(역) 1993).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부분 자체의 구조이고 둘째는 전체 자체의 구조이다. 전자는 부분들 내부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계열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후자는 완성된 전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통합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 랑그(Langue)와 빠롤(Parole)

소쉬르는 언어학을 기호학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고, 이 기호학 중에서 특히 언어학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언어 체계라는 말을 랑그와 빠롤과 구별하여 인간에게만 주어진, 일반적으로 인간이 말하는 능력과 그 능력의 발휘를 가리키는 용어로 규정하고, 이 언어 활동의 내부에서 수준을 달리하는 계서를 발견하여 랑그와 빠롤을 구별하게 되었다(소두영 1984).

랑그는 랑그 활동의 약호로 사회적 측면으로서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인간 사이의 거대한 제약이자, 제약의 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 제도이다. 그 언어를 구사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의사를 소통하려는 개인은 이 공동체의 제약을 변경할 수는 없고 도리어 그 제약에 순응해야 한다(소두영 1992).

빠롤은 위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여 자기의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이며 말을 건네는 인간의 구체적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속하는 언어 공동체의 공통된 약호인 언어의 태두리 속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나 다양한 변이체들을 구사한다(소두영 1984). 복식에서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랑그와 빠롤의 구분이 가능하다. 복식 품목의 측면과 사회 제도속에서의 관습, 규칙으로서 복식을 입는 격식을 랑그라 할 수 있고, 개인이 실제로 착용하므로써 직접 경험 관찰 할 수 있는 복식 현상을 빠롤이라 할 수 있다.

2) 계열 구조(Paradigmatic Structure)와 통합 구조(Syntagmatic Structure)

계열 구조는 서로 다른 실체를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는 단위들의 집합이며 문장상의 구성요소와의 통합적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과의 관계 즉 선택이 일어나는 기호들의 군을 말한다(Barthes 1983).

통합구조는 계열체에서 선택한 기초들을 조합하여 이루어진 기호 복합체 즉 코드, 메시지, 이야기, 지식같은 것을 말한다. 즉 통합구조란 선택된 여러 다른 기호들의 결합이다. 계열구조의 주 개념은 선택임에 비해서 통합구조의 주 개념은 결합이다(호옥스, 오원교(역) 1993). 통합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 결합되는 규칙이나 관습이다(Fiske 1982). 예를 들면 언어의 경우에는 취미와 유행과 사교상의 예절, 정치의 경우에는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다(김경용 1991). 그래서 우리는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도 자신의 생각대로 입는 것이나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다.

3)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소쉬르는 기호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결합체로서 자의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어떤 대상을 대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호들이 어떤 대상을 대신 할 수 있게 되는 기호의 내적 관계를 기표와 기의로 구분하였다.

기표란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말, 문자, 그림 등)이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기호의 이미지이고 기의는 실제의 의미, 즉 기표가 담고 있는 의미 또는 사람들이 어떤 기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추상적, 정신적 개념이다(Saussure, 오원교(역) 1973).

언어는 인간이 의사 전달을 위해 청각적 영상이 반드시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음성적 기호를 사용하는 반면에 복식은 의사 전달을 위해 시각적 영상이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외형적 기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호의 양면 중 언어는 감각으로 지각되는 소리의 면을 기표라 부르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면을 기의라고 하는데(한명숙 1987) 복식에서는 복식의 형태, 색상, 재질, 무늬 등을 기표라 하겠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각 디자인의 요소가 담고 있는 추상적 개념을 기의로 볼수 있다. 각국의 민속복식은 보는 즉시 어느나라 복식인줄 알게 되어 특수복식이나 역사복식은 기표와 기의가 뚜렷하다.

4) 외연적 의미(Denotation)와 내포적 의미(Connotation)

소쉬르는 주로 언어 체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관계 또는 텍스트 내의 기호들과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작용이라고 보았다(소두영 1992). 의미작용은 기표와 기의의 결합된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때 기호내의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일차적인 의미를 외연적 의미라고 하며, 외연적 단계에서 창조된 의미를 기표로 하는 2차 의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적 의미를 내포적 의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외연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기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며, 사전에서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를 가리킨다. 즉 외연적 의미는 표현의 일차적 내용이다.

한편, 내포적 의미는 외연적 의미의 저변에 깔린 관습이나 규약, 인간의 주관적 개입에 의해서 해석되는 심층적 의미로 기호들이 사용자의 느낌, 감정, 그들 문화의 가치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인 것이다(윤점순 1997). 소쉬르는 텍스트를 강조한 반면 바르트(Barthes 1983)는 소쉬르가 이용한 의미작용이라는 용어에 문화적 가치차원을 추가했다.

바르트가 제시한 의미작용의 2단계는 소쉬르가 제시한 기호현상(기표)+기호내용(기의)=기호를 의미작용의 1단계로 보고 이를 외연 또는 언어차원으로 정의했고 2단계는 내포의 의미를 창출하는 단계로 바르트는 이를 신화차원으로 정의했다. 즉 1단계의 외연적 의미를 지닌 기호가 새로운 기호

내용의 기호현상이 되어 특정한 의미를 지닌 내포적 의미의 기호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때 외연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말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내포는 말해지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작용을 복식에 적용시켜보면 문헌에 표현된 사진 및 그림은 각 시대의 복식 통합체로서의 기호들이다. 여기에서 기호 표현, 즉 기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입어서 표현된 문헌에 제시된 사진과 그림들이며, 문헌에 표현된 사진 및 그림은 기호 내용, 즉 기의는 각 시대의 복식의 종류이다. 이것이 일차적 의미, 다시 말하면 외연적 의미작용이다.

문헌에 나타난 복식 사진+복식의 종류=시대를 의미하는 복식, 즉 여기까지가 일차적 의미 다시 말하면 외연적 의미 작용이다. 내포적 의미 작용은 시대를 의미하는 복식+신분 계층을 나타낸다. 즉 이차적 의미 작용이다. 내포적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의미와 인간이 의미작용에 개입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복식을 착용한 사람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이 내포적 의미를 지닌다.

2. 로마네스크 시대 복식의 문화사적 배경

동유럽의 문화를 지배했던 비잔틴 제국은 6세기경부터 11세기까지 독특한 복식의 실루엣을 완성시켰으나 서유럽은 9세기경 까지 혼란기로서 문화면에서는 발전이 없었다. 11세기경이 되면서 로마네스크 미술 양식이 독자적인 취향으로 발전하여 모든 예술에 영향이 컸었는데 이시기에 있어서 로마와 비잔틴 복식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가 형성되어 로마네스크 시대 복식의 특징을 이루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중요한 특징은 건축에 있어서 서아시아적 아치 구조가 기묘한 수법에 의해서 벽은 두껍고 낮으며 평면은 십자형으로 건립되고 창은 반원의 아치형으로 수직의 감정보다는 수평적인 감정이 짙으며 웅대한 규모와 웅장한 공백의 건물 표면에는 로마네스크의 장식 조각이 훌륭하게 장식되었으며 그 모티브는 인간상, 동물, 식물 등으로 공상화해서 다종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김교육 1978).

로마네스크 스타일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복식에 중세유럽의 게르만적인 창조성과 동양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생겨난 독특한 양식을 뜻한다. 복식의 기본 스타일은 속옷 웨앵즈위에 블리오를 입고 위에 맨틀을 걸치는 것이었다(신상옥 1989). 블리오는 달마티카와 튜닉이 변형된 것으로 귀족 남녀들이 착용하였는데 여성의 복식은 복잡한 다아트, 커트없이 몸에 맞게 하기 위해 뒤나 옆을 트고 끈으로 묶었으며 길이는 바닥까지 닿거나 더 길어졌다. 나이가 많은 남녀는 더 여유있고 바닥까지 닿는 튜닉을 입었고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을 제외한 여성들의 머리는 목과 머리를 감싼 천으로 둘러져 있었다. 남녀 같이 사용된 오버코트는 오른쪽 어깨에 브로치로 고정된 반원형의 형태였다.

성 베드먼의 대관식에서 초기 원시 예술에 나타난 추상적이고 직선적인 튜닉에서 로마네스크의 양식을 볼 수 있었는데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신체를 완전히 덮었으나 육체적인 선이 다소 드러나는 형태도 있었다(Russell, Douglas 1983).

로마네스크 시대의 기본 복식은 블리오를 입었는데 대체로 남성은 무릎까지, 여성은 발까지의 길이였다. 이 블리오속에 생즈를 입고 블리오위에는 맨틀을 착용하였다. 11세기부터 여성들은 몸을 꼭 조이게 하기 위해 코르사주를 착용하였다.

III. 복식의 구조분석

1.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복식의 형태와 의미분석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복식을 그림과 문헌에 제시된 복식 명칭을 블리오(bliaud), 맨틀(mantle), 생즈(chainse), 코르사주(corsage), 머리모양과 머리장식, 신발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복식의 구성요소를 깃, 길, 소매, 길이, 폭, 장식, 색채, 직물, 문양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1>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복식

계열 구조	분 류		형 태	의 미
	복식 명칭	구성 요소		
겉옷의 상·하의	블리오 I (bliaud)	깃 길 소매 길이 폭 장식 직물	V 네크라인, 꼭 맞는 긴 바디스에 풍성한 스커트로 로 웨이스트에서 연결된 형. 허리선에 이음선이 있음. 지나치게 길고 넓다. 발목 길이. 상체는 꼭 맞고 하체는 풍성함. 스커트 부분의 주름장식, 로 웨이스트라인에 허리띠 장식, 실크.	로마네스크 시대의 샤프트르 성당에 조각된 왕비가 착용한 여성복의 겉옷.
	블리오 II	깃 길 소매 길이 폭 장식	실물에 나타나지 않음 꼭 맞는 긴 바디스에 풍성한 스커트로 로 웨이스트에서 연결된 형. 허리선에 이음선이 있음. 지나치게 길고 넓으며 주름 장식이 있음. 발목 길이. 상체는 꼭 맞고 하체는 풍성. 목부분의 보석으로 장식된 둥근 브로치 장식. 잔주름 장식, 로 웨이스트라인에 허리띠 장식	로마네스크 시대 시바의 여왕이 착용한 여성복의 겉옷.
	블리오 III	깃 길 소매 길이 폭 장식 직물 문양	라운드, V 네크라인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로 웨이스트에서 연결. 허리선에 이음선이 있음. 길고 소매부리가 넓음. 주름 장식이 있기도 함. 무릎 길이, 발목 아래 길이. 상체는 꼭 맞고, 하체는 풍성. 목둘레, 소매끝, 헴라인, 앞중심선 부분에 장식 밴드로 트리밍. 허리띠 장식, 잔주름 장식. 실크, 머슬린. 전통문양, 기하학적 문양.	로마네스크 시대의 귀족층이 착용한 여성복의 겉옷.

계열 구조	분 류		형 태	의 미
	복식 명칭	구성 요소		
겉옷의 상의	코르사주 (corsage) I	깃 길 소매 길이 폭 장식 문양	V 네크라인. 조끼 형식. 소매 없음. 허리 아래 길이. 몸에 밀착된 형태. 목둘레 자수 장식. 등에서 끈으로 묶음. 금·은사, 색사를 체크나 보석 장식. 헴라인이 곡선 형태. 허리에 가죽, 옷감의 밴드 착용. 기하학적 문양.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복의 겉옷.
겉옷의 현의	맨틀 (mantle) I	깃 길 소매 길이 폭	실물에 나타나지 않음. 반원형. 소매 없음. 발목 길이. 여유 있음.	로마네스크 시대 시바의 여왕이 착용한 여성복의 외부.
	맨틀 II	깃 길 소매 길이 폭 장식 색채 직물	실물에 나타나지 않음. 반원형, 장방형. 소매 없음. 무릎길이, 발목 길이. 여유 있음. 견색사, 금사로 단 장식. 양어깨에서 장식줄로 연결시켜 여밈. 안감과 걸감의 대조적인 색 배합. 실크.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복의 외부.
속옷의 원피스	생즈 (chainse) I	깃 길 소매 길이 폭 장식 직물	둥근 네크라인. A형. 꼭 맞는 긴 소매. 발목 길이. 상체는 꼭 맞고 하체는 여유. 소매부리에 수를 놓거나 장식선을 땀. 블리오 밑에 생즈의 목둘레선이 보임. 앞목둘레는 단추나 끈으로 여밈. 린넨, 실크, 울	로마네스크 시대의 귀족이 착용한 여성복의 속옷.
머리 모양과 머리 장식	헤어스타일	형태	앞중앙을 가르고 머리를 두갈래로 땀아서 길게 늘어뜨림. 땀아서 감아올린형.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 머리형.
	윙플 (wimple) I	형태 소재	사각형. 목과 머리를 감싸고 머리 꼭대기에서 걸쳐져 고정. 면, 린넨.	로마네스크 시대의 수녀나 미망인이 착용한 여성용 머리 장식. 종교적 영향.
머리 장식	베 일 (veil)	형태 소재 색채 장식	실물에 나타나지 않음	로마네스크 시대 일반 부녀자가 착용한 여성용 머리장식. 종교 행사시 사용하며, 종교적 의미 표현.

분 류			형 태	의 미
계열 구조	복식 명칭	구성 요소		
머리 장식	고 겹 (gorget) I	형태 장식	목과 턱을 감싸는 형태. 맨위에 베일을 씌. 장식적인 관으로 고정.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용 머리장식. 종교적 영향.
	후 드 (hood) I	형태 장식	어깨에 케이프가 달린 형. 챙이 위로 올라간 작은 모자 아래에 착용.	로마네스크 시대의 남·녀 공용 머리장식.
신 발	에스티보 (estivaux)	형태 재질 장식	앞끝이 뾰족한 형태. 종류 다양. 얇은 형태. 가죽, 벨벳에 금사, 은사 등을 넣어 짠 직물. 보석을 달거나 자수 장식.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용 신발. 귀족 계층이 착용하여 신분 표현.

〈표 1〉을 살펴보면 블리오의 형태는 I~Ⅲ까지 3종류가 있는데 블리오의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 형태이며 왕족과 귀족층이 착용한 것이 확실하나 서민층도 착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맨들은 I과 II 두 종류의 형태가 있으나 구성요소의 길이 반원형과 장방형이고 다른 부분도 거의 비슷하나 맨틀I은 왕족이 착용한 것이 분명하나 II는 확실치 않으나 서민층도 입었으리라 생각되고 형태의 특성은 없다. 몸에 밀착시키기 위한 겹옷의 상의 코르사주와 속옷의 원피스의 생즈는 왕족과 귀족층이 착용하였으며 튜닉은 서민층이 착용하였다. 머리모양은 왕족이나 귀족은 땅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이며 서민층에서는 머리장식으로 베일과 후드를 썼다. 신발은 왕족, 서민층, 귀족의 대부분 에스티보(estivaux)를 신었는데 왕족이나 귀족층은 보석이나 자수를 놓아 더욱 화려하게 하여 신분표현을 하였다.

〈표 2〉의 장식은 왕족과 귀족들은 장식적인 거들을 하였으며 서민층은 오모니에르(aumoniere)를 착용하였다.

〈표 2〉 로마네스크 시대의 장신구

분 류			형 태	의 미
계열 구조	복식 명칭	구성 요소		
장신구	거들 (girdle) I	형태 용도 장식	작은 단검, 작은 금, 은, 종을 매단 형태. 의복을 고정시키는 역할. 석으로 호화롭게 장식.	로마네스크 시대의 장신구. 남·녀 공용.
	오모니에르 (aumoniere) I	형태 용도 재질	주머니 형태. 거들에 매달음. 동전 이외의 다른 물건을 넣음. 삼자가 넣음. 비단, 가죽.	로마네스크 시대의 장신구. 남·녀 공용.

이상과 같이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 복식의 형태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표 3>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표 3>을 살펴보면 복식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으나 서민층보다는 왕족과 귀족층의 복식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표 3> 로마네스크 시대의 계층별 여성복식

계층	계열체 복식명칭	계열체	외투의	겉옷의	겉옷의	속옷의	머 리	장신구	
		겉옷의 상·하의	현의	원피스	상의	원피스		신 발	장 식
		블리오 (I~III)	맨 툴 (I,II)	튜 닉 (I)	코르사주 (I)	생 즈 (I)	머리모양 과 장식	신 발	장 식
왕 족		I,II.	I		○	I	땡아서 길게 늘어뜨림.	에스티보	거 들
서 민 층		○	○	○			베 일 후 드	에스티보	오모니 에르
귀 족 층		III			○	I		에스티보	거 들

왕족은 블리오에 있어서 I,II의 그 중 한 종류와 맨틀 I, 코르사주, 생즈, 땡아서 길게 늘어뜨림, 에스티보, 거들로 결합된 구조이다. 귀족은 블리오III, 코르사주, 생즈, 보석자수 장식된 에스티보, 거들로 결합된 구조이며 서민층은 블리오, 맨틀, 튜닉, 베일과 후드, 단순한 에스티보, 오모니에르로 결합된 구조로서 복식의 착용형태에 따라 계층을 구분할 수 있었다.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복식의 실루엣은 대부분 상체는 조이고 하체는 부풀리는 형태로 A형의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2.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 복식의 통합 구조

복식을 조합해서 입는 방법에 따라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운 멋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때 어떤 형태를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서 속옷은 어떤 것으로 입고 겉옷의 모양과 색을 조합해서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 통합구조관계이다. 이러한 통합구조관계는 그 시대의 복식형태를 나타내므로 로마네스크 여성복식의 통합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를 살펴보면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 복식의 통합 구조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 두가지로 계열 구조에서의 선택과 통합 구조에서의 결합이다. 계열 요소, 즉 복식의 종류를 표시하는데 각각의 통합 구조는 이들중 몇가지 계열체로 구성된다. 이 계열체중에서 의복의 종류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계열 중심 요소로 보고 나머지는 이 계열 중심 요소에 의해서 선택되어 결합되는 계열 요소로 본다. 그리고 계열 중심 요소와 계열 요소들은 그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의해 선택과 결합의 제약을 받게 된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Fig. 1의 왕궁정문의 왕비의 복식에서 계열 중심 요소는 겉옷의 상·하의인 블리오이고 길이가 바닥까지 긴 형태이며 머리모양에서는 땡아서 길게 늘어뜨린 형을 선택하여 왕비의 신분을 표현하였고 그 머리위에 왕관을 선택하여 착용하므로써 왕비의 신분을 나타냈다. Fig. 2의 시바의 여왕 복식에서 계열 중심 요소는 겉옷의 상·하의인 블리오이고 여기에 상류층 이상이 착용할 수 있는 블리오를 입은 것은 왕족의 신분을

표현하였다. 외투의 현의인 맨틀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땅아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위에 왕관을 선택하여 써서 왕족의 신분을 표현하였고 신발의 계열 요소에서 에스티보를 선택하여 착용하였다.

<표 4>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복식의 통합구조

통합 유형	개열 요소	계열 요소								
		블리오	튜닉	맨틀	코르사주	생즈	머리 모양	머리 장식	신발	장식
왕궁 정문의 왕비		○					땅아서 길게 늘어뜨림	왕관		거들
시바의 여왕		○		○			땅아서 길게 늘어뜨림	왕관	에스티보	거들
귀족층		○	○			○	땅아서 길게 늘어뜨림			
샤르트르 대성당의 정문에 있는 조상의 왕비		○		○	○	○	땅아서 길게 늘어뜨림	왕관		거들
서민층			○	○			땅아서 길게 늘어뜨림			거들



Fig. 1. Queen and King from Royal century, Portal, Twelfth Century, from History of Costume, p.165



Fig. 2. Queen of Sheba, Twelfth, from History of Costume, p.177



Fig. 3. Noblewoman's Costume, from History of Costume, p.117



Fig. 4. Column-statues, on the portal of chartres cathedral, from 20,000 years of fashion, p.175

Fig. 3의 귀족층은 계열 중심 요소로 불리오를 선택하여 정하고 여기에 속옷의 원피스인 생즈를 선택하여 착용하였으며 머리의 계열 요소는 땅아서 길게 늘어뜨린 형이 선택되어 귀족의 신분을 표현하였다. Fig. 4의 샤르트르 대성당의 정문에 있는 조상의 왕비는 계열 중심 요소를 생즈로 정하고 몸을 조이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겉옷의 상의인 코르사주를 선택하였으며 외투로는 맨틀을 선택하여 착용하였으며 여기에 머리 모양의 계열 요소에서 땅아서 길게 늘어뜨린 형을 선택하였고 그 위에 왕관을 써서 왕비의 계층을 표현하였다. 허리에는 낮은 허리선에 거들이라는 장식 벨트를 매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서민층은 튜닉을 계열 중심 요소로 정하고 여기에 맨틀을 선택하여 착용한 서민층의 단순한 형태이었다.

통합 구조에서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 복식의 계열 중심 요소가 대부분 장식적인 불리오를 선택하여 착용하므로써 우아함을 보였으나 서민층만 단순한 튜닉으로 신분계층이 표현되었으며, 머리 모양과 머리 장식은 상류층 이상만 땅아서 길게 늘어뜨리거나 왕관을 써서 왕족의 신분을 나타내었다. 장식에서 거들은 신분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두 착용하였으나 상류층의 거들은 더욱 장식적이며 서민들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신분계층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복식을 소쉬르에 정립된 구조주의 이론과 롤랑 바르트의 외연적 내포적 의미를 적용하여 복식의 형태와 의미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복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나 서민층보다는 왕족과 귀족층의 복식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장식적이었으므로 복식착용 형태에 따라 신분을 구분할 수 있었다. 복식의 형태는 구성 요소에 따라 각각 달라졌으며 그 형태는 그 시대 복식이라는 특징을 나타내었고 또한 같은 시대내에서도 착용자의 성별, 계급, 직업 등의 신분상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식의 계열체는 계열 중심 요소에 따라서 선택 되어지는 복식 형태로 이는 그 시대의 신분과 계층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통합구조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 두가지로 계열구조에서의 선택과 통합구조에서의 결합이었다.

통합구조에서 로마네스크 시대 여성복식의 계열 중심 요소가 대부분 블리올을 선택하여 착용 하므로써 우아함을 보였으나 서민층만 단순한 튜닉으로 신분 계층이 표현 되었으며 머리 모양과 머리 장식은 상류층 이상만 땅아서 길게 늘어뜨리거나 왕관을 써서 왕족의 신분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식에서의 거들은 신분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착용하였으나 상류층은 더욱 장식적이며 서민층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복식구조는 그 시대의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중세 로마네스크 시대의 여성복식의 구조는 특히 종교적 특성이 많이 강조되어 각 복식 계열체들의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이 차별화되어 그 사회의 특성을 의미화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김경용(1991).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pp. 100-101. 민음사, 서울.
2. 김교욱(1978). Romanesque 시대의 복식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pp. 283-306.
3. 소두영(1984). 구조주의. p. 37, p. 98. 민음사, 서울.
4. 신상욱(1989). 서양 복식사. p. 118. 수학사, 서울.
5. 소두영(1992). 기호학. p. 115. pp. 178-179. 인간사랑, 서울.
6. 윤점순(1997). 중세와 근세복식의 구조적 분석. p. 1. pp. 13-15.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이성희(1995). 군 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 구한말의 군 복식을 중심으로 - p. 17.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이정욱, 최영욱, 최경순(1989).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서울.
9. 한명숙(1987). 한국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p. 57.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Barthes, Roland(1983). Mythologies, trans lated by Annette, L. pp. 42-43. p. 114. p. 115. Hilland Wang, New York.

11. Boucher, Francois(1987). 20000 Years of Fashion. Thames and Hudson, New York.
12. De Saussure, Ferdinand. 오원교(역)(1973). 일반언어학 강의. pp. 61-62, 형설출판사. 서울.
13. De Saussure, Ferdinand(1966).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pp. 27-28, Megraw-Hill, New York.
14. Fiske, Jhon(1982).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p. 126, Methuen, London.
15. Payne, Blanche(1965). History of Costume. Ha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6. Russell, Douglas A(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p. 112, Prenticettall Inc, New Jersey.
17. Terence, Hawkes. 오원교(역)(1993). 구조주의와 기호학. p. 113, pp. 20-21, 신아사. 서울.